

뜨거운 호응에...도립미술관 '이진희 컬렉션' 더 오래 감상한다

11월12일까지 전시 연장...9월말 기준 전국서 3만5천명 다녀가 43명 작가 60여 작품...남도 출신 허백련·오지호·천경자 등 관심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남도 출신 화가들의 예술혼이 만나 시너지효과를 낳았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열리고 있는 '이진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전시가 연장된다.

도립미술관은 15일 이번 전시는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도민과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답하기 위해 11월12일까지 전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 연장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시 시작한 8월 17일부터 9월 말 기준 약 3만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전남수목비엔날레(10월 31일까지) 특별전시 일환으로 개최된다는 점도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 요인이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재와 미술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고(故)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시 연장으로 전남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남도립미술관이 2021년에 이어 개최한 두 번째 특별전이다. 당시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도 화제의 중심에 설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가들의 작품을 실견할 수 있다는 점이 열풍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2021년에는 도립미술관이 기증받은 19점의 작품을 집중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 기증작까지 폭을 넓혀 총 43명의 작가 6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남도가 배출한 대가들의 작품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 것으로 보인다. 허백련, 오지호, 천경자 등의 화풍은 남도를 넘어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성과 특유의 울림을 선사한다.

허백련의 '어항풍경'은 산수에 대한 작가의 경협



천경자 작 '만선'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을 자유로운 선과 색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수려한 산수를 배경으로 미끄러지듯 강을 떠내려가는 배들의 행렬은 자유로운 심상을 느끼게 한다.

오지호의 '복사꽃 있는 풍경'은 봄의 절정에 다다른 장면을 이미지화했다. 몽케구름 피어나듯 화려하게 핀 복사꽃은 몽환적이면서도 이상적이다. 흑여 무리지어 핀 꽃 너머에 무릉도원이 있을 것 같은 풍경이다.

천경자의 '만선'은 활달하면서도 섬세한 필법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만선의 기쁨을 신비감과 환상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만선의 의미를 삶

의 다채로운 영역으로 확장해볼 수 있는 여지를 선사한다.

남도 출신 작가들 외에도 김기창, 장욱진, 이중섭, 박수근, 이응노, 방해자 등 저마다의 예술혼이 응결된 작품들은 어느 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심미안을 선사한다.

아울러 작가의 노트에 쓰인 말에 따라 작품이 세 개 주제로 나뉘어 있어,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집중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작가의 에세이집이나 화문(畵文) 집에서 발췌한 글은 장작의 고통과 희열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도립미술관

이 수집해 영상물과 인쇄물로 정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다.

정하은 학예사는 "관람객들은 작가의 노트에서 발췌한 글들과 그림을 보며 작가가 어떤 감정에서 작품 활동을 했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단색화 대가' 박서보 화백 별세

'묘법' 연작 등 추상미술 기여...제주에 미술관 건립 중

'단색화 대가' 박서보(본명 박재홍) 화백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기지재단 이윤진 상임이사는 이날 "박 화백이 14일 오전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193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박 화백은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특히 그는 무수히 많은 선을 긋는 '묘법' 연작으로 '단색화 대표 화가'로 불리며 한국 현대 추상미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박 화백은 지난 2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난 SNS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평생 담배를 물고 살았다. 그러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서야 끊었다"며 "내 나이 아흔둘, 당장 죽어도 장수했다는 소리를 들을텐데 (지금의 시간들)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화백은 1962~1997년 모교인 홍익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홍익대 미대 학장(1986~1990)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1977~1980) 등을 지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많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을 비롯해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일본 도쿄도 현대미술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박 화백은 지난 2022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술가는 남과 달라야 한다. 선생도, 친구도 닮으면 안 되고 역사에도 빛지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고인은 수행(修行)하듯 자기 세계를 천착했고, 단색화 '묘법' (描法·Ecriture) 연작의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한편 올해 개최된 제 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박서보 화백의 이름을 딴 '광주비엔날레박서보예술상'이 제정돼 화제가 됐다. 하지만 '지역 예술계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광주 정신과 맞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박서보 예술상에 대한 폐지를 주장, 안타깝게도 제1회 시상을 계기로 예술상이 폐지된 바 있다.

아흔을 넘어서도 창작활동을 지속했던 고인은 올해 2월 페이스북을 통해 폐암 3기 진단 사실을 밝히면서도 "팬데믹에 한 줄이라도 더 웃고 싶다"며 작업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고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제주도에 건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명숙씨를 비롯해 2남 1녀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소빈 화가 뉴욕서 '문자와 드로잉' 전

광주 출신...18일부터 대작 2점·드로잉 10점 등 20여점 전시

박소빈 화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용', '여인' 그리고 '연필'.

특유의 상상력을 모티브로 화폭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림을 그린다. 그것도 연필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연필을 덧칠해 만들어낸 생동감과 신비한 이미지는 박 작가의 트레이드마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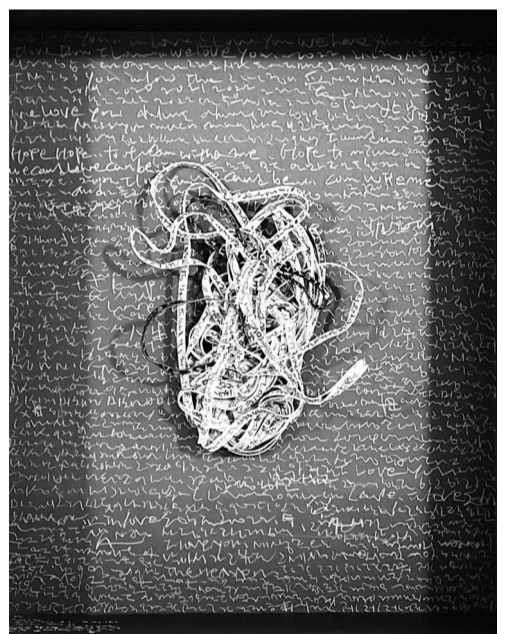
현재 작가는 중국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9년 뉴욕 브루클린 BOS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한 이후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중국에 머물러 그림을 그렸다.

지난 2017년 박 작가 초대전을 열었던 중국 금일미술관 전시기획자 황두는 "스케치는 제대로 된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현대작가가 개인전에 연필 드로잉 작업을 선보이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모험적인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광주 출신 박 작가가 뉴욕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오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뉴타운 테니에서 개최하는 'PICTOGRAPH TO SIGN'이 그것. 특히 이번 전시는 박 작가가 지난 2007년 테니에서 처음 열었던 전시를 16년 만에 다시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에는 6m에 이르는 대작 2점을 포함해 작은 드로잉 작품 10점 등 모두 20여점을 선보인다. 내용은 '기도문' 외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이 다수다.

큐레이터인 탈리아는 박 작가에 대해 "용과 처녀의 웅변적인 이미지에서, 박의 공식 어휘는 다양한 디자인과 복잡한 웹의 외부 연속체에서 개발되었는데 그것들은 선과 점선 형태를 통해 빠르게 흐르는 전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PICTOGRAPH TO SIGN'

평했다.

이번 전시작 중에는 팬데믹 기간 중국에 있으면서 연필로 기도문을 썼던 작품 등이 포함돼 있다. 'PICTOGRAPH TO SIGN'은 삶의 기쁨과 아픔, 슬픔과 사랑 등을 주제로 했으며 연필로 쓴 필체는 문자가 지닌 독특한 이미지를 발한다.

특히 작품 한 가운데 있는 눈동자 모양의 형상은 작가의 심리적인 눈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깊은 고요와 정적이 깃든 눈동자가 무수히 많은 문자 위에 둘러싸인 모습은 문명과 자연에 대한 사유로 읽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노래·유머 '양석승 힐링콘서트'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20일 남구문예회관

시와 노래, 유머가 깃든 힐링 음악 콘서트...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소장 양석승·사진)는 '제38회 양석승 힐링콘서트'를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문예회관 공연장 2층에서 연다. 공연은 대중가요부터 색소폰, 대금, 타령 등 다양한 곡들을 들을 수 있다.

'비내리는 요양원' 등을 발표한 가수 채호가 사회를 맡으며 가요 '철갑산', '청춘화살'을 부를 예정

이다. 대금연주에 주병선, 가수 안은경의 '그대 먼 곳에', 주진주 '돌리도', 신동석은 '비겁한 맹세' 등도 울려 퍼진다.

대중에게 유명한 곡들도 선보인다. 윤숙자는 임영웅 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며, 색소폰리스트 이소리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타' 등을 연주한다.

대중가요와 더불어 우리 전통 민요도 귀를 즐겁



게 한다. 가수 연유가 경기민요 '장부타령'과 '사랑바람(진소리)'을 부른다. 또 전유창은 '풍각쟁이'를, 선민균은 '운명같은 여인', 전금복은 '참 사랑'을 들려준다. 이외 가수 박연진, 윤숙자, 김향도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양석승 소장은 "시와 유머, 노래가 어우러지는 힐링 콘서트가 지역민들에게 활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송가수들이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를 준비했으니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M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